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 세계 식량안보의 기반

매년 10월 16일은 세계 식량의 날이다. 금년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주제가 되어 그들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들이 그들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혹은 더 나은 가격협상력을 갖기 위해 함께 모여 형성한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은 주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며 기술과 재정적 자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규모 농가의 중요성과 잠재성을 강조한 금년의 주제는 전 세계적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2헥타르(ha) 이하 면적의 땅에서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농업인 집단이다. 세계 식량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 농가는 5억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되며, 이 중 87%가 아·태 지역에 있다. 2050년까지 예측되는 90억명의 인구를 부양하려면, 곡물생산량이 지금보다 70%가 증가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의 생산성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향상되어야 한다(그림 1). 쌀을 제외한 곡물의 대부분을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도 세계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용환
신젠타 동북아시아 지역 솔루션 개발담당 시장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겸임교수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농업 부문은 전반적인 투자감소로 생산성 향상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소규모 농가에게는 최상의 기술과 농업 지식, 정보, 적절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소규모 농업을 재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한 해 약 3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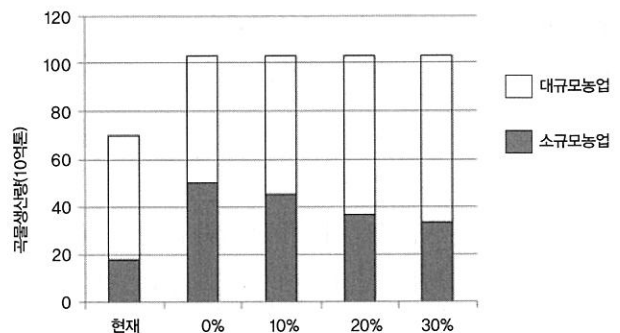
최근 한국과 일본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소규모 농가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빈국의 식량 안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농업 및 식량 안보 프로그램(GAFSP)에 추가적으로 3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GAFSP는 18개국에 6억5천8백만 달러를 할당하였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을 시장과 연결함으로써 적어도 820만 명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까지 보릿고개로 대변되어 온 우리나라의 식량부족문제도 녹색 혁명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민의 자립성을 고취시킴으로써 해결되었으며 이러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경험은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수되어 영세농가의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효과적인 기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은 가능한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을 - NGO에서부터 정책 수립 기관, 식품 회사에서부터 농업인, 직원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모두 망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과 기술, 농기계, 관개, 작물재배 전문성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들이 함께 모여 기술을 융합할 때, 물 효율성과 인프라, 수확 이후 폐기물 관리와 같은 중요한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에서의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농업분야 투자가 매우 필수적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규모 농가들이 그들이 가진 잠재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이 한층 강화되고 식량 안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대규모 농업의 생산성향상(현재-2050년)



(그림 1) 2050년 곡물필요량과 소규모농업의 생산성 향상: 대규모농업의 생산성향상을 20%로 가정하면 소규모농업에서의 필요한 생산성향상은 2.4배에 이른다 (Source: 신젠타).